

호스피스 소식

1) 호스피스과 신설 - 가톨릭의대 성가병원(부천)
일시 : '93. 9. 1

현재는 호스피스과 책임 간호 수녀님이 한분 계시며 각과별로 호스피스 팀원을 교육시키고 있음.

2) 호스피스 병동 시설 - 성가복지병원
일시 : 92. 8

호스피스과를 두고, 병동(25병상)도 두게 되었다. 현재 호스피스과와 병동에 각각 책임자로 수녀님 두분이 계시고, 간호사 3명, 봉사자 66명 있음.

3) 종합병원내 호스피스 교육 : 고려대학교 구로 부속병원

취지 : 종합병원으로서 말기환자를 돌볼 필요를 갖게 됨.

일시 : 6. 22~7. 1과 10. 19~28 각각 6회씩 총 18시간

대상 :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참석 : 80명씩 2회 참석

현재 중앙내과의사인 김준석 교수(회장)를 중심으로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모임인 "호스피스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있다.

종파를 초월한 비 종교인 모임이지만,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응하기 위하여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의 신자들이 회원에 가입하고 있다.

-봉사자 교육을 통하여 봉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4) 수녀원에서의 호스피스 교육 - 서울 성가소비녀회

취지 : 수도회 정신 구현과 현재 수녀회 사업인 복지 병원의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일시 : 5월 8일~10일 / 11월 18일~20일 2회에 걸친 교육

참석 : 수녀님 169명이 참석함.

5) 호스피스 교육지원

협회 년중 계획의 하나인 지역별 호스피스 교육지원을 하게 되었다.

서 호스피스 교육을 했다. 참가인원은 약 170명이었으며 안림동과 그외 인근지역에서도 참석했다.

6) 영국 호스피스 견학

협회의 연중 계획중 하나인 영국 호스피스 견학여행은 회원 14명이 무사히 마치고 왔다.

일시 : 1993. 9. 4~9. 15일

방문한 호스피스 기관 : St. Christopher's Hospice, Sir Michael Sobelle House (Oxford), Cancer Relief Macmillan Fund, Michael Sobell House, St. Joseph Hospice

견학에 참석한 회원 14명이 속한 호스피스기관 : 부산 메리놀 병원, 대구 파티마 병원, 광주 천주의 성 요한 의원, 수원 성 빈센트 병원, 서울 성가복지병원, 가톨릭의대 부속 성모병원(여의도), 고대부속 구로병원, 중대부속병원,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가정호스피스

참석한 회원들은 여행전 2회의 준비모임을 통하여 영국의 역사 문화 일반과 영국전체의 호스피스에 대한 Video와 강의를 들었다. 또한 개인 여행이기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우리나라 호스피스 발전에 기여하기위한 여행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분담했다.

여행 도중과 후에는 평가 모임을 가졌다. 견학을 통하여 회원들은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랜 역사와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뿌리 내려온 호스피스의 정신과 방법을 배울 수 있었기에 좋았다.

이제 이런 정신과 방법들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호스피스를 연구하면서, 각 지역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지적된 점은, 호스피스 전문인 팀으로 구성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실정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나 가족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나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에 따라 응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짐했다.